

췌장무시병 산모에서 azithromycin을 이용한 성공적 치료

가톨릭의대 내과학교실, 산부인과학교실* 김원철, 김영옥, 윤선애, 박태철*, 이진우*

췌장무시병은 *Orientia tsutsugamushi*에 의한 급성 감염성 질환이다. 비임산부에서는 일반적으로 doxycycline이나 chloramphenicol이 추천되지만 이러한 약제들은 모두 미 연방 식품 의약국 (FDA)의 태아 위험 일람표의 D에 속하는 약제들이므로 산모에서는 금기이다. 최근 태아 위험 일람표의 B군에 속하는 항생제 중에서 azithromycin이 췌장무시병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이 약제는 태아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연자들은 췌장무시병이 발병한 산모에서 azithromycin을 투여하여 태아와 산모에 별다른 합병증 없이 성공적으로 치료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임신 21주가 경과된 30세 여자 산모가 내원 2주일 전에 경기 북부 지역에 등산을 다녀온 후 1주일간 지속되는 고열, 두통, 전신 발진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시 체온 38.1℃였고 체간과 사지에 홍반성 구진이 관찰되었으며 우측 발목관절의 외측부에 1 cm 크기의 둥근 가피가 관찰되었다. 간접 면역형광검사서 *Orientia tsutsugamushi*에 대한 항체가 1:1,260이어서 췌장무시병을 확진하였다. 내원 2병일에 azithromycin 1000 mg을 하루 한번 경구 투여하였으며 다음 날 부터는 5일간 250 mg을 일일 일회 투여하였다. 체온은 azithromycin 투여 시작 이틀 후부터 호전되었으며 6병일에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한 상태로 퇴원하였다. 퇴원 후 산모는 임신 40주 3일에 3.8 kg의 건강한 여아를 질식 분만하였으며 제대 혈에서 검사한 *Orientia tsutsugamushi*에 대한 항체는 음성이었다. 결론적으로 비임산부에서 일차 선택약제로 사용되는 흔히 doxycycline은 태아기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임산부에서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태아의 안전성이 입증되고 췌장무시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azithromycin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 Sun-176 —

비장경색이 동반된 췌장무시병 2례

한림의대 내과 정재원*, 전강, 이승준, 정두련

췌장무시병은 *Orientia tsutsugamushi*에 감염된 털진드기에 물렸을 때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고열, 물린 자리의 특징적인 가피 및 림프절 종대와 함께 다양한 장기의 이상을 초래한다. 이 질환의 병리는 소혈관의 광범위한 혈관주위염과 혈관내피 손상으로 인한 장기의 간질성 부종, 모세혈관의 내피층형 및 림프구와 대식세포 침윤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혈관내피 손상과 관련되어 파종혈관내종괴가 췌장무시병에 동반되는 경우는 흔하나 비장경색이 동반된 예는 아직 보고된 적이 없다. 본 저자들은 췌장무시병에 비장경색이 동반된 2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1: 45세 여자로 발열과 전신 근육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3일 전부터 상기 증상과 함께 전신에 피부 발진이 발생하였다. 오른쪽 둔부에서 가피가 관찰되었다. Doxycycline이 투여되었으며 수동적 혈구응집검사에서 *O. tsutsugamushi*에 대한 항체가는 초기에 1:80에서 입원 5일째 1:320으로 증가되었다. 입원 경과 중 좌측 상복부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복부전산화단층촬영에서 비장경색 소견을 보였다. 2개월 후 추적검사에서 경색의 크기는 크게 감소하였다.

증례2: 발열과 상복부 통증으로 내원한 39세 여자로서 내원 3일 전 피부발진이 있었다고 하나 내원시 검사에서는 발진이나 가피는 발견되지 않았다. 입원 1일째 시행된 간접면역형광항체법에 의한 *O. tsutsugamushi*에 대한 항체가는 1:640이었으며 복부전산화단층촬영에서 비장경색이 관찰되었다. Doxycycline 투여 후 발열과 상복부 통증은 소실되었으며 3개월 후 추적검사에서 비장경색은 호전되었다.